

# “공은 둥글다...울산은 자신있다”

광주FC, 오늘 오후 7시 울산 원정 맞대결

최근 맞대결 3전 전승 자신감...“방심은 금물”  
이정효식 맞춤형 전략으로 원정 징크스 깬다  
강력한 압박·역습, ‘強對強’ 맞불 관전포인트



“울산에서 원정 징크스를 깨고 승전고를 울려라.”

광주FC가 10일 오후 7시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 HD FC와 하나은행 K리그 2024 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주말, 강원 원정에서 0대2로 패하며 8위로 내려앉은 광주는 울산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해 강등권과 격차를 벌리겠다는 각오다. 반면, 2위 울산은 광주를 꺾고 선두 자리 탈환을 노리고 있다.

전력 면에선 울산이 한 수 위다. 현재 울산은 선두 김천을 승점 1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양 팀의 맞대결은 3전 전승으로 광주가 우세하다. 지난 5월15일 맞대결에서도 2대1로 승리했다.

광주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만 7패를 기록했다. 홈에 비해 경기력도 좋지 못하다. 특히 수비가 불안하다.

지난 강원 경기에서도 보이지 않은 실적으로 2실점을 허용하며 패했다.

경기 막판 체력 고갈로 인한 집

중력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꼽은 이정효 감독은 베테랑 안영규, 이상기 등의 적재적소 활용을 통해 수비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

공격에선 가브리엘과 이희균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희균이 중원을 휘저으며 나오는 공간을 가브리엘이 파고들면서 결정적 기회를 만들고 있다.

가브리엘의 변칙 드리블에 이은 과감한 슈팅과 크로스도 상대 수비진에겐 위협적이다. 문전 앞 침착함만 되찾는다면 언제든 멀티골을 기록할 수 있다.

최근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 테크니션 신창무와 울산전에서만 두 골을 터뜨린 이강현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히든카드로 꼽힌다.

양 팀 간의 대결은 측면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좌우 풀백 김진호와 두현석의 활발한 오버래핑과 날카로운 크로스는 울산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반면, 울산은 강력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광주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원에서의 치열한 몸싸움과 측면 수비수들의 적극적인



지난 5월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 HD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광주FC 이강현이 팬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광주FC제공>

수비 가담이 승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중 저녁에 열리는 이번 경기는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울산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K리그 팀 중 가장 무승부가 적은 광주의 다

공 축구가 만나 흥미진진한 경기로 예상된다.

과연 광주가 울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원정 징크스를 깨뜨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임애지, 한국 여자 복싱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 ‘부푼 꿈’

# “파리는 내 인생에 언제 올지 모르는 축제”

임애지(25·화순군청)는 한국 여자 복싱을 대표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2차 세계예선대회 여자 54kg급에서 제이넵 라히모바(아제르바이잔)를 제압하고 오연지(울산시체육회)에 이어 한국 복싱 두 번째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그는 2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눈앞에 뒀다.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이었던 2020 도쿄 올림픽은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첫판에서 니컬슨 스카이(호주)에게 판정패했지만, 파리에서는 시상대를 바라본다.

임애지는 8일 “솔직히 메달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복싱 메달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내 기량만 발휘하면 금메달까지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목표를 밝혔다.

한국 여자 복싱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 처음 올림픽 무대에 나섰다.

당시에도 임애지와 오연지 두 명이 나갔는데, 일정상 임애지의 경기가 먼저 있어서 임애지가 ‘최초의 한국 여자 복싱 올림픽’ 타이틀을 차지했다.

임애지의 강점은 발놀림(스텝)이다.

복싱에서 스텝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출발점이다.

그래서 ‘복싱은 주먹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경기’라는 말도 있다.

임애지 역시 “스텝과 뒷손(큰 펀치)을 주 무기로 생각한다. 누구를 만나든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서는 한국 여자 복싱 기대주 임애지. <전남도체육회 제공>

파리에서는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대신, 마음을 비우고 대회를 즐기는 게 목표다.

도쿄 올림픽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경기장과 숙소만을 오갔던 임애지는 “올림픽에 한 번 다녀와서 그런지 마음은 편하다. 도쿄 때는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있을 경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내 인생에 언제 올지 모르는 축제’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함께 올림픽에 출전하는 든든한 언니 오연지와 함께 당당하게 메달을 따고 올림픽을 즐기는 것이다.

임애지는 “언지 언니랑은 ‘같이 메달 따자’는 이야기는 안 한다. 대신 가서 즐기려고 한다. 파리에서는 메달 따고 우리 선수들 응원하면서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UFC 복귀전을 치르는 최두호 (UFC 제공)

## ‘코리언 슈퍼보이’ 최두호 오는 21일 UFC 복귀전

한국 격투기 팬의 사랑을 받는 최두호(33)가 UFC 복귀전을 치른다.

UFC 사무국은 오는 21일 열리는 ‘UFC 파이팅 나이트’ 대회에 최두호가 출격한다고 밝혔다.

UFC 데뷔 후 3경기 연속 1라운드 펀치 KO승리를 거두며 헤성처럼 등장했던 최두호는 이후 부상과 복무 등으로 긴 공백기를 가졌다.

지난해 2월에는 3년여 만의 UFC 복귀전에서 카일 벨스(캐나다)를 맞아 우세한 경기를 펼치기도 무승부를 거뒀다.

다시 1년 5개월 만에 옥타곤에 서는 최두호는 빌 알지오(미국)와 페더급 대결을 벌인다. 최두호가 이번엔 알지오를 꺾는다면 2017년 6월 티아고 타바레스(브라질)전 이후 8년 만에 UFC에서 승수를 추가할 수 있다. /연합뉴스

## “빛고을 명예 걸고 파리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려라”



9일 파리올림픽 한국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한 전광주시체육회장이 광주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도 이혜경, 펜싱 강영미, 전갑수 회장, 근대5종 전용태, 펜싱 김재원,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시체육회, 파리올림픽 빛고을 태극전사 격려

광주시체육회가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빛고을 국가대표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9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파리 하계 올림픽 결단식에 참석해 광주를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근대5종 전용태, 펜싱 강영미·김재원, 유도 이혜경,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 등 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광주 소속 선수로는 대한민국 근대5종 첫 메달을 획득한 전용태(광주시청·2023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2관왕)와 펜싱 강영미(서구청·2023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단체 1위), 김재원(서구청·2023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단체 3위), 유도 이혜경(광주교통공사·2024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2위), 스포츠클라이밍 신은

철(더설·제10회 전국체육대회 1위) 등 5명의 선수가 4개 종목에 참가해 ‘금빛 도전’에 나선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대한민국과 광주를 대표해 출전하는 자랑스러운 선수들의 선전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며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해 최고의 성적을 거둬 광주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광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 공모 선정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3억6천8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은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를 대상으

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전국 191개 단체 546개 팀이 공모에 참여해 53개 단체 292개 팀이 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 인권친화 문화조성 노력, 선수

단 실적, 사회공헌 노력 4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근대5종, 스쿼시, 레슬링, 유도(광주교통공사) 등 11개 팀이 선정됐다.

지원금은 팀 운영에 필요한 용품 구입과 훈련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 ‘파리행 3인방’ 양희영·고진영·김효주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 메달에 도전하는 양희영, 고진영, 김효주(왼쪽부터) /AFP=연합뉴스

## 올림픽 전초전 에비앙 출격

국내와 미국에서 활약하는 한국 여자프로골프의 정예 멤버들이 이번 주 프랑스 알프스 산맥으로 집결한다.

오는 11일부터 프랑스 남동부의 휴양지 에비앙 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 클럽에서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아문디에비앙 챔피언십이 열린다.

LPGA 투어 베테랑 양희영이 지난 달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하면서 이번 시즌 우승에 대한 갈증을 풀었다.

이번 주 대회에는 양희영을 비롯해 2019년 우승자 고진영, 2014년 우승자 김효주, 유해란 등 LPGA 멤버에다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이예원, 박지영, 황유민까지 가세해 모두 18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예원은 이번 시즌 3승, 박지영은 3승을 올리며 절정을 기량을 뽐내고 있다. 황유민도 1승을 포함해 출전한 대회마다 고른 성적을 거두며 KLPGA 상금 5위에 올랐다. 지난 5월 일본여자프로골프의 메이저 대회 살롱파스컵에서 아쉽게 준우승했던 이예원은 “우승은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며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에비앙에 출전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한국의 정예 멤버들과 우승을 다툰 선수들로는 작년 대회 우승자 쉐린 부티에(프랑스)를 비롯해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 허리 부상에서 돌아와 지난 6월 마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한 릴리아 부(미국)가 꼽힌다.

또한 올해 US오픈을 제패한 사소유카(일본), 2021년 에비앙 대회 우승자 이민지(호주)도 출전한다. /연합뉴스